

# 3년 만에 열리는 14회 ‘유일한상’ 수상자에 김우주 교수

(고려대구로병원)

코로나19 방역 정책 수립 큰 역할  
바이러스 감염병 국내 최고 전문가  
과학적 근거 기반 둔 방역정책 강조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열리는 유한양행의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한양행은 제14회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육제 유한양행 사장은 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유일한상 시상식에서 김우주 교수에 상패와 상금 2억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일한상은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해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한 해를 건너 뛰면서 제14회 시상식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열리게 됐다.

유일한상심사위원회 한승수 위원장은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계절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한 선구자로 꼽힌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KISS)를 구축하여 공공보건에 기여했으며, 2010년부터 신종인플

루엔자 범부처사업단 단장으로 바이러스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대응민관합동공동위원장, 즉각대응팀장 등을 맡았고 지금은 대한백신학회 회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자문 또는 직접 통제에 나서 국내 감염병 치료 및 예방 관리 정책 향상에 크게 공헌해 왔다.

김 교수는 특히 2020년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려대 의과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 공로로 대통령 근정포장(2006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2010년), 대한의학회 바이엘임상의학상(2019)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전염병 팬데믹 어떻게 해결할까?’ ‘차이 나는 클래스: 의학·과학편’ ‘신종바이러스의 습격’ 등이 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유일한상’은 일평생을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교육인으로, 그리고 사회봉사자로 살다간 고 유일한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제정했다. 매 2년마다 수상자의 연료나 경력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올린 인사를 발굴 선정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코스맥스, CES서 기술중심 ‘뷰티테크’ 제시 제일약품, ‘씨잘’·‘지르텍’ 독점 공급

서울대 소프트파운드리연구진 협업  
맞춤형 스마트 이온 패치 등 선보

코스맥스가 서울대학교 소프트파운드리연구소 연구진과 협업해 개발한 혁신 뷰티 기술을 CES 2023에서 공개했다. 미세전류로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인 마스크팩과 초정밀 피부탄력증정기 등 기존의 성분 중심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 중심의 ‘뷰티테크’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코스맥스는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전시회 CES 2023 부스 전시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된 기술은 ▲초박막 갈바니 마스크팩 ▲맞춤형 스마트 이온 패치 ▲생분해 소재 적용 패치 ▲하이드로겔 힐링 패치 ▲초정밀 피부탄력증정기 등으로 기본 원리는 사람의 피부에 흐르는 생체전류와 유사한 미세전류를 활용하는 것이다.

초박막 갈바니 마스크팩은 종이 두께



코스맥스는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전시회 CES 2023 부스 전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소프트파운드리연구소 연구진과 협업해 개발한 혁신 뷰티 기술을 공개했다.

보다 얇은 배터리와 그래핀 시트를 결합해 빠른 유효성분 흡수를 돕고 탄탄한 피부를 구현한다.

맞춤형 이온 패치는 블루투스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압을 조절하여, 피부 상태에 따라 유효성분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또 생분해성 배터리를 부착한 패치는 일정 시간이 지

나면 자연에서 분해되어 친환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이드로겔 힐링 패치는 별도의 배터리 없이 일상적 움직임으로 생성되는 전압을 통해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고 근육 긴장 완화 효과를 내는 점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한국유씨비제약의 대표적인 알레르기 치료제인 ‘씨잘’과 ‘지르텍’ (사진)을 제일약품이 판매한다.

제일약품은 한국유씨비제약과 ‘씨잘정’, ‘씨잘액’, ‘지르텍 100정’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 공급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르텍’은 60개국 이상에서 판매중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은 물론 습진 등에도 적응증을 보유한 의약품으로 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씨잘’은 ‘지르텍’과 약물 성분 및 효과는 비슷하나 ‘지르텍’의 주성분인 세티리진 중 약효를 주로 나타내는 R-거



울상 이성질체 세티리진만 분리하여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 약효가 신속하게 나타나며 오래 지속되는 이점이 있다. ‘씨잘’은 정제 형태인 ‘씨잘정’과 액제 형태인 ‘씨잘액’ 두 가지 제형으로 다양한 연령에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씨잘액’은 유소아 복용이 편리한 액상 제형으로 1세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다. 두 약물 모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하이드로코티손 외용제와 병용 시 습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동아제약, D-판테놀 연고 패키지 리뉴얼

‘판디’ 캐릭터 적용

동아제약은 피부염 상비약 D-판테놀 연고(사진)가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동아제약 자사 제품인 어린이 해열·감기약 캠프의 캐릭터인 ‘판디’를 적용했다. D-판테놀 연고는 영유아에게 친근한 판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영유아 토탈케어 브랜드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D-판테놀 연고는 끈적이지 않고 흐르지 않는 제형으로 피부염, 기저귀 발진, 상처, 화상, 따미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한 피부 연고다. 주성분인 텍스판테놀은 피부 재생, 상처 촉진 및 겨울철, 환절기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휴대하기 편리한 튜브 용기와 원터치 캡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기반으로 D-판테놀 연고가 영유아 토탈케어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D-판테놀 연고는 스테로이드, 향료, 보존제, 향생제,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5無 브랜드로 온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연고”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2023년 참가자 모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운영하는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가 2023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센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금연캠프는 금연약물, 흡연과 질환, 금연과 영양관리 등의 교육과 개인 및 그룹 심리상담, 건강체조, 캘리그래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금연캠프에 입소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알리며 금연캠프 참가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램시마’, 브라질서 2년 연속 단독 입찰

셀트리온, 중남미 지역 입지 강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브라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 입찰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중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인 브라질에서 2년 연속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입찰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램시마 총 34만 2000바이알을 브라질 연방정부 시장에 독점 공급하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입찰 수주에 성공한 브라질 연방정부는 전체 인플릭시맙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에도 경쟁사들을 제치고 단독 수주에 성공하며 램시마를 브라질에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지역에

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시장인 브라질을 선점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램시마 뿐만 아니라 트룩시마, 허쥬마 등 모든 제품들의 입찰을 성공적으로 수주했으며, 올해 예정된 리톡시맙 및 트라스투주맙 입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허가 받은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역시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어서 포트폴리오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성과는 브라질의 중남미 지역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주요 국가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에서 램시마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에서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모두 95%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중남미 6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세경 기자